

“음식 빚고 웃음 나누고…명절 분위기 물씬”

■ 광주서구가족센터 다복다복 설날 프로그램

다문화·비다문화 100명 전통놀이·명절 음식 체험
산적·동그랑땡 등 직접 조리…경로당 전달 덕담도

“모두 함께 모여 음식을 만들고 나누니, 꼭 마을잔치에 온 것 같습니다. 낯선 타국이 아니라, 정 넘치는 고향처럼 느껴져요.”

설 명절을 앞둔 11일 오전 10시, 광주 서구 양동 광주서구가족센터 어울림실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고소한 전 냄새로 가득 찼다. 광주서구가족센터가 가족 간 화합과 지역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한 가족친화문화프로그램 ‘다복다복 설날’ 현장이다.

이날 행사에는 베트남·필리핀·중국 등 다문화 32가정과 비다문화 12가정 등 총 44가정에서 100여명이 참여했다. 설 명절의 유래를 배우는 시간을 시작으로 산적·동그랑땡 만들기, 전통놀이 체험, 음식 나눔 순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책상 위에는 맛살과 대파, 햄, 단무지, 밀가루, 계란물 등이 가지런히 놓였다. 부모와 자녀들은 직원의 안내에 따라 재료를 나무꼬치에 차례로 끼고, 밀가루와 계란물을 묻혀 달걀 쉘 위에 올렸다.

노릇하게 익어가는 산적과 동그랑땡 사이로 아이들은 서로의 점시를 들여다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서툰 손길로 뒤집던 전이 모양을 잡아가자 박수가 터져 나왔고, 가족들은 완성된 음식을 나눠 먹으며 명절의 온기를 미리 느꼈다.

한쪽에서는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 고요’로 시작하는 설날 동요가 울려 퍼졌다. 아이들은 노래를 따라 부르며 율동을 더했고, 행사장은 자연스레 작은 명절 마당으로 변했다.

베트남 출신 이민씨(37)는 초등학교 2학년 딸과 함께 처음 행사에 참여했다. 그는 “설 문화가 낯설 줄 알았는데 세뱃돈과 복 이야기 등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다”며 “아이와 함께 한국의 명절을 배울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한국 생활 10년 차라는 그는 “명절이 다가오면 고향 부모님 생각이 난다”며 가족을 떠올렸다.

필리핀 출신 아나린씨(40)도 “필리핀의 주요 명절은 하루만 쉬어 3~5일 이어지는 한국 설이 새롭게 느껴진다”며 “여러 가족과 함께 음식을 만들고 전통놀이를 체험해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투호 던지기, 윷놀이, 딱지치기, 제기차기, 연 만들기 등 다



11일 오전 광주 서구 양동 광주서구가족센터 어울림실에서 열린 ‘다(多)복(福)다(多)복(福)’ 행사에 참석한 다문화 가족들이 전통음식 ‘산적’을 만들고 있다.

양한 전통놀이가 이어졌다.

프로그램을 마친 아이들은 추억의 뽑기를 통해 학용품 세트와 스케치북, 간식 등을 선물로 받았다. 방패연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같은 소망이 적혔다. 한복을 차려입고 전통 장신구로 머리를 꾸민 가족들은 기념사진을 남기며 설 분위기를 만끽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투호 던지기, 윷놀이, 딱지치기, 제기차기, 연 만들기 등 다

참가자들은 직접 만든 산적과 동그랑땡, 굴을 양호·삼상·삼이 경로당 3곳에 전달하며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눴다.

아이들은 손수 만든 음식을 건네며 새해 인사를 전했고, 어르신들은 덕담으로 화답했다. 명절의 온기가 세대를 넘어 확장되는 순간이었다.

쌍촌동 주민 조은경씨(49)는 “다양한 가족이 함께 어울리며 서로를 이해하는 1

석 2조의 효과를 느낀 시간이었다”며 “설 연휴에는 고향 전주에 올라가 가족과 전을 부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혜경 광주서구가족센터장은 “부모와 자녀가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설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기억하길 바란다”며 “다양한 가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여대, 올해 교원임용시험 28명 합격

2회 연속 ‘최우수 교원양성기관’ 입증

광주여자대학교가 2026학년도 교원임용시험에서 총 28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2회 연속 최우수 교원양성기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11일 광주여대에 따르면 양성 단위별로는 교육과(초등특수교육과·중등특수교육과)에서 초등특수교사 13명, 중등특수교사 6명이 합격했으며, 교직과정(간호학과·미용과학과)에서는 보건교사 1명, 미용교사 8명이 합격했다. 특히 전남도교육청 초등특수교사 임용시험에서는 수석 합격자를 배출했다.

합격자는 △광주시교육청 2명 △경기도교육청 6명 △경상남도교육청 2명 △전남도교육청 4명 △인천시교육청 4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명 △사립학교 9명 등으로 전국에 걸쳐 고르게 분포했다.

강혜진 교직과정센터장은 “선발 인원 감소로 매년 교원 임용시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뤄낸 것은 미래교원 양성을 위한 특화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노력과 훌륭한 교수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설 연휴 광주 교육시설 주차장 무료 개방

광주시교육청은 귀성객과 지역민의 주차 편의 지원을 위해 설 명절 연휴기간인 오는 14~18일 교육기관, 학교 등 주요 교육시설의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개방 시설은 시교육청, 동·서부교육지원청 등 행정기관 15곳, 일선 학교 127곳 등 총 142곳이다. 단,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학교와 기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방하지 않는다.

특히 분청 자주식 주차장을 포함해 총 313면을 개방해 인근 주택가의 주차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차장 개방은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므로, 이용에 앞서 개방시간 등을 확인해야 한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전남대 농생대, 정밀 축산 인재 키운다

아시아 최고 축산 연구기관서 인턴십

관련 산업문제 해결 공동연구 본격화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이 아시아 최고 수준의 축산 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제공동연구 인턴십을 본격화하며, 정밀축산 분야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와 산업문제 해결형 연구모델 구축에 나서고 있다.

11일 전남대에 따르면 전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산업학과·동물자원학부 대학(원)생들이 아시아 최고 수준의 축산 연구기관인 국립 평등대학교(NPUST, National Pingtu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에서 연구 인턴십을 수행하며 국제공동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NPUST는 아시아권 축산·동물과학 분야를 선도하는 연구 거점 대학으로, 특히 모든 연구에 특화된 정밀 실험 인프라를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체별 사육 챔버, 정밀 환경·영양 통제기 가능한 실험 농장, 생체 시료 기반 대사·생리 분석 시설, 스마트 모니터링 및 행동 분석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어 행동·생리·대사 지표를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최첨단 연구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인프라는 국내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고정밀 실험 설계를 가능하게 하며, 다량의 생체 시료 확보와 다학제 동시 분석 수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인턴십은 최근 전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과 NPUST가 체결한 단과대학 간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의 하나로, 제도적 협력 체계 위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참여 학생들은 NPUST의 Liang Chou Hsia 교수와 Ming-Tang Chiou 교수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두 연구진은 정밀영양학, 분만생리, 번식생물학, 행동생리학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들이다.

연구에 참여한 동물산업학과 석사과정 우주아(지도교수 윤진현), 동물자원학부 권희호, 홍도성 학생은 고능력 다산성 모

돈에서 나타나는 △분만 시간 증가 △생리·대사적 스트레스 상승 △자돈 폐사율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밀 영양 기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해당 연구는 단순 영양시험을 넘어 정밀 영양 공급, 호르몬 변화, 행동 반응, 분만 효율을 연결하는 융합 연구 모델을 구축하는 고난도 다학제 연구로 평가된다.

특히 고온기 번식돈의 난산 감소, 자돈 생존율 향상, 모든 스트레스 완화 등 양돈 산업 현장의 핵심 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 산업적 활용 가치 또한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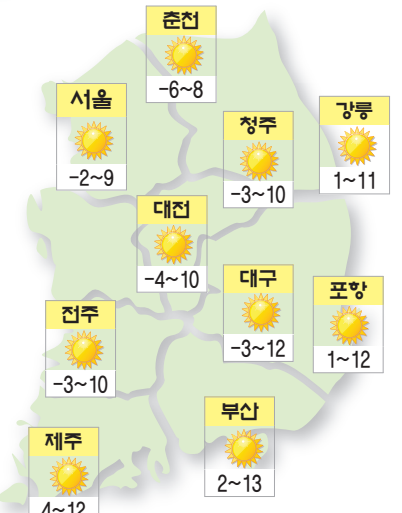
NPUST의 정밀 사육시설과 국제적 수준의 연구 장비는 이 같은 융합 연구 수행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정밀 생리·행동 통합 연구는 국제공동 연구를 통해서만 실질적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남대 관계자는 “이번 연구 인턴십이 학생들의 글로벌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양 기관 간 장기적 국제공동연구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 | | | |
|-------|-------|--------|-------|
| ☀️ 맑음 | 07:22 | 🌙 달맞이 | 03:37 |
| ☁️ 맑음 | 18:12 | 🌧️ 달맞이 | 12:58 |



| | | |
|-----|----|-------|
| 광주 | ☀️ | -2~11 |
| 목포 | ☀️ | 0~8 |
| 여수 | ☀️ | 1~11 |
| 순천 | ☀️ | -1~13 |
| 구례 | ☀️ | -2~12 |
| 광주 | ☀️ | -2~11 |
| 임도 | ☀️ | 0~12 |
| 흑산도 | ☀️ | 4~10 |
| 진남 | ☀️ | -4~12 |
| 진도 | ☀️ | -1~10 |

| | | |
|----|-------|---------------|
| 목포 | 일출(교) | 10:00 / 21:42 |
| 여수 | 일출(교) | 02:20 / 17:01 |
| | 일몰(교) | 06:27 / 17:40 |
| | 일몰(교) | 12:54 / 23:53 |

국정원 행사·무전취식 징역

만년필 ○·○국정원 요원 행세를 하면서 무전취식을 일삼은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져.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광주의 여러 식당에서 총 15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국가정보원 비밀 요원이다. 음식값은 국가가 추후 별도로 지불할 것”이라며 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특히 그는 재판과정에서도 “국가가 지급해야 할 돈”이라고 주장하다가 판사의 감지 처벌 경고를 받고서야 소란을 멈췄다고.

감치는 법원이 형사처벌 유무죄를 떠나 법정 질서 위반자에게 최대 30일 이내 교도소 등에 유치하는 제제.

재판부는 “피고인은 편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인 점,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살던집 프로젝트’의 ‘중간집’을 찾아 입주해 생활하고 있는 주민의 안부를 살피고 있다.

광산구 ‘살던집 프로젝트’, 주거복지 3관왕

제12회 주거복지활동 우수사례 ‘대상’…경경사

광주 광산구는 시민의 존엄성을 지키는 정책 ‘살던집 프로젝트’가 (사)한국주거복지포럼이 주최한 ‘제12회 주거복지 활동 우수사례 공모’에서 대상(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비영리단체,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광산구는 △광산형 ‘살던집 프로젝트’ △주거 취약계층 희망사다리 ‘이기가

(家) 꿈’ 사업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시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광산구는 앞서 ‘2025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종합대상,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이번 대상까지 더해 주거복지 분야 ‘3관왕’을 달성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추진한 ‘살던집 프로젝트’는 주거 기반 통합 돌봄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았다. ‘살던집 프로젝트’는 시민이 나이가 들어 기존에 거주하던 집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거·의료·돌봄을 연계한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 정책이다.

광산구는 지난해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돌봄 기능이 결합된 주거 공간으로 전환해 사업을 본격화했다. 공공임대주택 공사를 병행 퇴원 후 전환기 시민의 회복과 자립 준비를 지원하는 ‘중간집’으로 조성·운영하며, 주거·의료·돌봄을 통

합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중간집’에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 17세대가 입주해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광산구 사례를 주목해 ‘살던집 프로젝트’의 전국 확산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광산구는 기존 성과를 바탕으로 생활권 중심의 사업 확대를 추진하며, 전국 확산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살던집 프로젝트는 시민이 익숙한 공간에서 존엄성을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일상을 이어가도록 돕는 새로운 주거복지 기준”이라며 “앞으로도 주거·의료·돌봄을 연계한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